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오늘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의 시(市)정책 방향과

예산운용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과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의원여러분 !**

올해는 18만 파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의 여파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 역시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여름 전국을 휩쓴 수해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여
한해를 보내는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 지난 6월 4일 제2대 민선시장과 시의원을 뽑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자치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 시 의원 여러분과 18만 파주시민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98年の 成果와 敎訓

올 한해 동안 우리시는 시련도 많았지만
18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1C 살기좋은 『으뜸파주』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련의 순간들을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알찬 시정성과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129명의 정원을 감축시키고
중복되는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는 신설하으로써
조직의 능률과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봉사대와 “시민의 소리” 창구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공무원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진실한 봉사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시정정보센타에
민원전산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지방세와 토지관련 민원을 전산화하여
바르고 빠른 ONE STOP 봉사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과 공무원 수당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실직자 768명의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여
수해복구비에 충당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해온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을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의 산과 강과 주변환경을 밝고 맑게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한 발 앞서
침단쓰레기소각장, 축산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마을회관, 노인정등을 건립하여
● 마을단위 복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본격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시설 보강과
장애인 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제2회를 맞는 『장단콩축제』는
운영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이제 파주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농산물축제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농협 파주시 하나로클럽은
파주농산물을 60%이상 취급하면서
2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우리 농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통일대교와 동파-점원간 도로가 개통된데 이어
국도 37호 문산·적성간 도로와 송포·문산간 도로확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공청회등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파주역사 및 월릉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가
년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그밖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위전·신산간, 삼방·방축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신산2리와 봉일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한데 이어
시청·28연대간 우회도로와 파주읍 우회도로,
통일로·선유간 도로확장사업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여름 뜻하지 않은 엄청난 폭우로
38명의 인명피해와 건물 7,300여 동이
침수되고 100여채의 가옥이 전파,유실된 것을 비롯하여

● 6,400여 ha의 농경지가 침·관수 피해를 입었고
도로, 하천제방 등 공공시설 405개소가 붕괴되고
금촌, 봉일천, 신산리, 연풍리, 법원리 등
주요 시가지가 물에 잠겨
2만여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당한 가운데

● 군, 경, 공무원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해
불과 18일만에 응급복구를 마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소중한 교훈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99年度 與件과 市政課題

'99년도는

국가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분야별 구조조정과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딛고 파주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로
부족한 우리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욱 늘리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내년도 市 政策基調는

4대 시정방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 준비된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21C 『으뜸파주』 비전을 구체화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① 경제난 극복을 위한 파주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면서

② 내고장 『파주사랑』 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 ③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면서

21세기 통일시대 파주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④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만족』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 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經濟難 克服을 위한 地域經濟活性化 戰略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내재된 잠재력을 찾아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해 나가면서
유망한 外資를 유치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나가는
지역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제 자체재원 능력이나 중앙, 도의 재정지원만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나 투자유치는 중앙정부의 몫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풍요로운 미래를
일궈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안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외자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장이 직접 자본유치를 위한 세일즈행정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 아울러 부추, 인삼, 청정미, 임진강담수어 등
우리 지역의 토종과 명품을 꾸준히 발굴하여
특산화시켜 나가는 한편,
장단콩축제와 같이
4계절을 대표할 농산물을 선정하여
계절별로 농산물 축제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
● 적성 백합을 수출주력 작목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농업 기술의 혁신과
『건강식품 관광단지』 조성 등
농산물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 파주 하나로클럽을 활용하여
● 지역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늘리고
주변에 재래식 농산물시장을 개설하여
적은 양의 농산물도 늘 판매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유치한
문발공단의 모토로라 코리아는

● 연간 20억원 이상 시(市)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지난 11월 20일 착공을 하였으며,
탄현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와
금승, 오산, 금파 공단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화촌을 비롯한 2단계 통일동산 건설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체계화하여
관광여건을 늘려 나가고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계획된 크고 작은 투자사업들을
모두 조기발주 시키고
공공근로자를 유망기업체 또는 생산성 있는 공공시설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실업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의 적극전개

살기 좋은 『으뜸파주』는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으며,

『제2의 건국』 운동은 내 고장 파주사랑정신을 토대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식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한 나머지
砂上樓閣과 같은 불안한 경제구조속에서
단 한번의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도

그 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과소비, 호화사치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민의식개혁운동은
거리질서, 쓰레기투기, 불법주정차안하기와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해자원봉사활동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자원봉사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내 고장을 아끼고 내 이웃을 돌보는
성숙한 시민참여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파주사랑』 운동을 통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제2의 건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21世紀 坡州繁榮의 기틀 마련

지역개발정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누릴 수 있는
주변환경의 유리한 변화를

지역발전의 호재(好材)로 삼아

이미 구상중인 파주발전기본계획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나가고자 합니다.

18만 시민의 희망이 담긴

파주도시기본계획은

금촌과 문산을 파주도시 발전의 남북중심축으로 육성하면서
동북부지역의 관광자원과 산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서부지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개방해나가며

임진강유역을 비롯한 민북지역과 비무장지대 일대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 가꾸면서

세계적인 안보생태 관광지역으로

이용해 나가는 구상을 담고있습니다.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와 중앙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즉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줄곧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남북교류와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하면서
그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남북간 교통망과 동서간 횡단도로,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그리고 남북 물류기지와 미니신도시 건설사업들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374건의 수해복구사업을 728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복구 위주로 조기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또한 우리시가 추진해 온 지역개발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촌역~순달교간 간선도로, 당동우회도로를 비롯하여
분수~용미간, 구읍~가월간, 성동~금산간, 검산~축현간,
통일로~파주리간 등 13개 노선의 지역간 교통망과
문산 시가지 간선도로, 봉일천~일산간 확포장등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8개 구간에
모두 132억원을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내년중에 마무리하고
첨단 쓰레기소각장과 금촌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에는 착수에 들어가 1-2년 후면
계획중인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준공되므로써
● 머지 않은 장래에 개발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푸른파주가 될 수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상수도 확장공사를 서둘러 발주하여
먹는 물 걱정을 덜고
● 급수지역을 파평, 적성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市民満足』의 自治行政 具現

최근의 빠른 행정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와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는
행정여건을 갖추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진실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정전산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토지, 건축, 주민등록, 호적 등
각종 시청정보를 전산화하여
ONE STOP 민원처리를 실현하고
이에 발 맞추어
전 직원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전산능력을 습득하여
과학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시청 전산교육장을 개방하여
시민의 전산교육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기 시장 취임직후 조사한 800여건에 이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항을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임기 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되 잘못된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을 2차례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토록 했을 경우 실비를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Smile(미소), Service(봉사), Satisfaction(만족)의 3S운동을 전개하여 친절도우미 배치, 청사안내판정비 등 시민만족의 친절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주의』 제도를 도입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 모든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연풍리 종합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하여 전 시민의 민방위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郷土文化 保全과 生活體育 振興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보전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의 자랑스 지켜나가는 일이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는
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문화·파주를 상징하는 종합문화행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울곡문화제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격상시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예단체별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몇 년 후에는
문·예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발전과 시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 읍면마다 한 건 이상 민속놀이, 농요, 민요를
발굴하여 상징성 있게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민속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상 보존차원에서 관리되던
화석정, 반구정, 석불입상 등 수많은 문화·유적지들의
주변환경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향파주의 긍지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금촌 체육공원과
읍면단위 소규모 운동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종목별 동호인 단체를 육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건설중인 파주공설운동장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진력해 나가면서
내포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여유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가꾸어
문산권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별로 1종목이상
체육꿈나무들을 지원 육성해 나가므로써
체육진흥의 100년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99年度 財政運營方向

내년까지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의 완급을 가려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과
주민복지증진분야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외자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도비 사정 역시 원활치 못하여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5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58억원이나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의 여파로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금년도 세수 결함액이 162억원에 이르렀고
내년도에는 200억원까지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99년도 예산이 짜여지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족한 재정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는 외부자본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분야나 공공시설들은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시키므로써
작고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 또, 현금투자보다는 아이디어에 의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정력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세출예산은,

일상경비에 37%를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로 63%를 배분하여

일반행정비에 325억원, 사회개발비에 544억원,

경제개발비에 217억원,

민방위등 기타경비에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 음 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오늘 설명드린 '99년도 정책기조는
매우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서
적은 투자로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초 긴축재정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본의 아니게 우리 파주시는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 잘못 알려져 우리시의 명예가 크게 손상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1천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사정이 나쁘다고 비판 하거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낙관을 하지 않고
시책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파주가 중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희망찬 미래! 21세기 살기 좋은 『으뜸파주』를 위해
우리 파주시 공직자들은 어떠한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견디어 내고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18만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 11. 25

파 주 시 장 송 달 용